

한국의 벤처기업은 태생적 글로벌기업인가: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김종운 (한남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제화 수준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실태조사」 자료 중 1,970개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자의 특성 중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경영자의 학력과 과거 업무 경험은 매우 유의하게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주었는데,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우와 과거 마케팅 분야의 업무 경험을 보유한 경우에 다른 경우보다 수출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업 특성의 경우, 기업의 기술수준은 기업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주생산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집중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국내시장의 경쟁 수준은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수출지역 및 직접진출지역의 수가 늘어날수록 국제화수준은 높아지고, 그 수출지역의 수가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국제화 수준은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창업후 10년 이후의 기업군에서는 매우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에 있어 벤처기업 경영자의 교육과 업무경험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태생적 글로벌, 수출집중도, 국제화, 영업이익율

1. 연구의 배경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세계시장의 동질화와 함께, 이동수단 및 통신 기술의 향상으로 세계시장의 교역장벽이 낮아지고, 산업 및 시장의 급속한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요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심화되고 기술변화의 속도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이 생존이나 성장을 위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자원이나 시장규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국제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 이론인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은 국내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후 제품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제품의 원가절감 및 해외시장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 수명에 따른 단계론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설립 초기에는 자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후, 소수의 해외시장에 집중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고, 그 전문성과 시장지식을 늘려가면서 진출 지역을 확대해나간다는 국제화단계론(Internationalization Process Theory, IP model, Johanson & Vahlne 1977)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조직학습론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Hult, et al. 2008)은 수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해외시장에 관한 지식과 진출 노후가 축적되어 기업성과가 나아져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기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나 전문성의 부족에 더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이나 전문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rier, 1999). 이에 더하여, 기업의 규모 및 해외시장의 접근성 부족 등 본질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위험회피(Risk-Averse) 경향이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보다 커서 국제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오랜 동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구분되는 특성의 분석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창업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며, 기존의 단계적 국제화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출현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그 양태와 원인,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기업군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높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틈새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다국적기업을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jongkim09@gmail.com

· 투고일:2016-03-06 · 수정일:2016-04-20 · 게재확정일:2016-04-24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혁신적 중소기업의 국제화 동인 및 국제화 과정(Internationalization Process Theory)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한 형태의 혁신성 있는 기업들은 “태생적 글로벌기업”(Born Globals: Rennie, 1993), “글로벌 창업기업”(Global Start-ups: Oviatt & McDougall, 1994), “첨단기술 창업기업”(High Technology Start-ups: Jolly et al. 1992), 또는 “국제벤처창업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s: Oviatt et al. 1994)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¹⁾²⁾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한 대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대량 실업의 발생을 경험하면서, 산업의 대기업 의존성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원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기술 또는 혁신기반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법과 제도를 만들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장려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군은 대기업의 하청거래를 주로 하는 기존 중소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과연 태생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인지,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들의 국제화 동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분석하고, 경영자와 기업, 그리고 환경 등의 변수들이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벤처기업은 태생적 글로벌기업 특성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과 기업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제화 수준이 높은 벤처기업이 과연 수익성이 높은지를 검증할 것이다.

II. 기존 연구의 고찰

국제무역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성장의 기회를 해외시장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또는 기술의 활용(Oviatt & McDougall, 1994) 등의 이유로 진행되고 있고, 해외로 진출하거나, 진출지역을 확대할 경우 새로운 시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하며, 진출국의 규제나 무역정책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가용자원의 제약 하에서 위험 회피적인 전략으로 점진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러한 단계적 국제화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Madsen et al. (1997, p.565)은 그러한 태생적 글로벌기업의 출현의 원인을 전문화의 심화로 인한 많은 틈새시장의 발생(New Market Conditions), 생산과 수송 및 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그리고 창업자의 능력 향상(More Elaborate Capabilities) 등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및 덴마크의 328개 수출기업들을 분석한 Davidsson et al.(1994)은 약 20%의 기업들은 창업한 해부터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특히 창업 후 10~15년 이내의 기업들이 기존기업들보다 해외수출 비중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덴마크의 948개 창업기업을 분석한 Christensen & Jacobsen(1996)도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창업 후 수년 이내에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몇몇 다른 국가들의 일부 기업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현상 및 그 동인에 대한 분석이 지속되고 있다.

태생적 글로벌기업에 대한 연구들의 근본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기업들은 어떠한 사전적 특성(Antecedents)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출현하는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그들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그들의 기술수준 등 산업적 특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Madsen & Servais, 1997)

그러한 질문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태생적 글로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효과 결정요인(Zou & Stan, 1998)으로, 그들은 회사의 수출전략 및 경영층의 태도와 인식 등 통제가능 변수와, 회사특성(회사의 해외사업 경험, 보유기술 수준, 회사 규모 등)과 경영자 특성(경영자의 해외사업 경험, 교육, 일반 비즈니스 경험 등) 등 통제불가 변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 바, 그 영향요인을 경영자, 기업 및 환경적 특성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먼저 경영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경영자의 해외 경험(Park 2007; Shin, 2014), 경영자의 글로벌 지향성(Choi et al. 2015)과, 창업자의 전문성과 기술역량(Kim et al. 2013) 등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Shin(2014)을 제외하고는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인 해외 체류나 비즈니스 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1 〉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경영자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

구분	영향 요인	저자
기술개발 역량	- 기술역량	- Jeong et. al.(2015)
	- 연구개발역량	- Yoon et. al.(2007), Park(2007)
	- 기술력	- Park (2011)
	- 기술 수준	- Choi et. al.(2015)
	-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Kim et. al.(2010)
	- Technology level	- Zou and Stan(1998)
	- Investment in R&D	- Eusebio et al.(2007)

1) “firms that seek to derive significant advantages from the use of resources from or the sale of outputs to multiple countries/continents right from their legal birth”(Oviatt and McDougall, 1994)
 2) “Born Globals”의 구체적인 정량적 정의를 시도한 경우도 있다. Knight & Cavusgil(1996)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매출액의 25%를 수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Luostarinen and Gabrielsson (2004)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다른 대륙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정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네트워킹 및 마케팅 역량	- 해외 네트워크 - 핵심고객과의 네트워크 - 외부 네트워크 - 비즈니스 네트워크 - 해외 마케팅역량 - Marketing Strategies - Int'l Market Expansion Strategy	- Jeong et. al.(2015) - Park(2007) - Park et. al.(2011) - Kim et. al.(2010) - Jeong et. al.(2015) - Ogunmokun & Ng(2004) - Donthu & Kim(1993)
경영자 특성	- 경영자의 해외 경험 - 경영자의 글로벌 지향성 - 창업자의 전문성과 기술역량	- Park(2007), Shin(2014) - Choi et. al.(2015) - Kim et. al.(2013)

다음으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 표 1 >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역량과, 네트워킹 및 마케팅 역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연구결과가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네트워킹·마케팅 역량이 기업 국제화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Kim et al.(2013)은 단계별 구분을 통하여 창업단계에서의 기술역량은 그 국제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 환경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할수록(Shin, 2014), 또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구조가 치열할수록(Park 2011) 국제화수준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의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단계이론과 상반된 결론으로서,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해외진출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과연 그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수출과 관련된 기업성과는 주관적으로 경영자가 느끼는 성과(Lages & Lages, 2005)와 객관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의 사용 지표는 다양하다. 객관적인 실적지표를 쓰는 경우에는 매출액(Sales)이나 수익성(Profitability)가 많이 사용되었다.

기술기반기업들의 기업 성과에 대한 연구는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다. McDougall & Oviatt(1996)은 수출이 증가할수록 시장점유율 및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고, Bloodgood et al.(1996)은 국제화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Marginal)이라고 분석하였으며, Burgel et al.(2001)은 수출기업들이 생산성과 매출액 증가율은 높지만, 고용증가율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Lu & Beamish(2001) 및 Westhead et al.(2001) 등은 수출 성향(Propensity to Export)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고 분석하였고, Kim et al.(2007)은 글로벌기업이 성장성과 시장성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나았으나, 수익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하였으며, Kang(2011)은 해외진출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출 확대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다가, 국제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과연 한국의 벤처기업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인가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경영자, 기업 및 환경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제화 수준의 변화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태생적 글로벌기업에 대한 연구에서와는 달리, 국제화 수준에 따라 태생적 글로벌기업을 사전적으로 정의하여 배제하지 않고,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조사하고 지원하는 벤처기업 전체를 그 모집단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광범위한 기업군에 포함되는 많은 기업들의 다양한 국제화 요인이나 수준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산업이나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을 보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산업과 기업을 망라하는 분석을 수행한다. 위의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자료 접근성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분야 등 특정 산업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의 4개사를 분석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례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는 그 범위가 넓지만, 산업적 특성이나 기술분야 등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좀 더 타당한 결과를 보이려고 시도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경영자 특성의 영향을 심층분석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 과거의 업무경험 분야를 추가하였고, 기업 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해당 산업 및 업력과 기업 규모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과 업무 기능별 직원의 구성비율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업 환경 특성으로 국내시장의 경쟁 정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전략도 분석대상 영향 요인에 포함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 수출 형태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가, 또는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하는지를 구분하고, 또 그 진출지역의 수를 반영하여 진출 형태의 차이나 진출 지역의 수가 해외시장 진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문제의 설정 및 실증모형

3.1 분석의 대상

정부는 대기업의 하청생산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과는 달리 자체적인 연구개발센터 등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³⁾ 그들의 혁신형 창업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대기업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에 비해 대기업 의존성이 적고, 틈새(Niche)시장 및 제품에 대한 자체 기술개발 및 혁신 능력이 크다고 인식되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을 ①벤처캐피탈 투자기업(자본금의 10% (5천만원) 이상), ②기술력 우수기업(전문기관 평가), ③연구개발기업(매출액의 5~10%(5천만원) 이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4.4월말 현재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한 벤처기업기업은 719개사, 기술력평가로 인한 벤처기업은 26,369개사, 그리고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벤처기업은 1,478개 등 총 28,630개사이다(중소기업청 통계자료).

있다. 이는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이 2.9%로서 이는 대기업(1.4%)이나 다른 중소기업(0.8%)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70.6%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10.8%)의 6.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기업당 약 7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 주력제품의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벤처기업이 20.1%였으며,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이다.⁴⁾

또한, 벤처기업들의 주요 업종은 기계·제조·자동차업종(29.5%), 음식료·섬유·금속(22.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11.0%) 및 소프트웨어·정보통신(16.0%) 등 첨단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 바탕의 벤처기업들은 매출신장성을 높여서, 2014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일반 중소기업의 4.4% 및 대기업의 -0.4%에 비해 벤처기업은 11.2%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이러한 벤처기업 중 총화임의추출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실태조사 결과(2013)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국제화 동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의 설정

연구 및 정책목표로서 자주 분석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국제시장에의 참여를 높이는 과정”(The Process of Increasing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Markets, Welch & Luostarinen, 1988)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인, 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뜻하는 “수출집중도”(Export Intensity, Lu & Beamish, 2001)를 사용한다. 수출집중도는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출성과의 대리변수(Proxy)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수출기업의 경영성과로는 이윤,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등(Hult et al. 2008)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로 사용하여, 수출집중도와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동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벤처기업의 규모와 업력이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두 번째로 벤처기업이 보유하는 기술의 수준이 그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며, 세 번째로 벤처기업 경영자의 학력과 과거 업무 경험 분야가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이나 지역 수가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지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동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특성과 경영자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의 국제화 수준 영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벤처기업 대표자의 연령, 학력 및 과거 업무 경험분야는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국제화 활동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회사의 창업자나 대표이사의 교육이나 국제화 경험, 또는 나이 등 경영자의 특성에 좌우될 수 있다. McDougall et al. (1996)은 창업자의 과거 활동이나 경험에서 획득한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시장 침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다른 연구들은 대표자의 국제업무경험(Bloodgood et al. 1996), 연령(Westhead et al. 2001), 대표자의 배경이나 경험(Madsen & Servais, 1997) 등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대표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그의 나이에 더하여, 대표이사의 학력과 과거 업무경험 분야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이 기업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가설 2: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회사 규모, 회사의 업력 및 생산방식은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규모와 업력은 단계적 국제화이론에서 핵심적인 설명변수로서 한 회사의 국제화 활동 수준과 정도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논지는 기업의 재무적, 기술적, 인적 자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규모일수록 국제화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으로서, 이 이론에 따르면 대기업이 자원이 많고 매출액이 많아서 국제화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전통적인 단계론적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태생적 글로벌기업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업력이 길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경우, 생산방식의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자체적인 공장을 보유하여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지, 외주를 통해 생산하는지, 또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활용하는지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전략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설 3: 벤처기업이 보유하는 기술 수준은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태생적 글로벌기업에 대한 논의 및 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태생적 글로벌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한다. 기술적 우수성을 가진 중소기업은 그러한 우위성이 사라지기 전에, 또는 다른 기업들에 의해 모방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에 주목한다(Crick & Jones, 2000).⁵⁾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높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라서 보유하는 기술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4)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벤처기업, 양적·질적 성장으로 창조경제 성과 창출 주도”, 2015.12.28

5) Madsen & Servais(1997)은 국내시장이 대규모인 경우에 태생적 글로벌기업은 대부분 첨단기술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국내시장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태생적 글로벌기업은 첨단기술이 아닌 분야에서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화 수준이 높은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4: 국내시장에서 해당 산업의 경쟁 수준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국내의 산업구조가 혁신형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어떤 산업의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한 경우,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국내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생존전략 또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시장의 경쟁 수준이 기업들의 국제활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5: 벤처기업의 해외수출지역수 및 해외직접진출 지역수는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많은 자원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에 대한 정보와 예측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그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연구(Ibeh, 2000)는 전략적 계획의 수행 여부가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전략적 회의 건수 등과 국제화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방법에 있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해당 시장에 대한 지식 및 현지법인의 설립 등을 통한 현지 진출이 회사의 전략적 접근을 더욱 잘 나타낸다고 보고, 이러한 활동이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6: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 경영성과가 좋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활동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그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림으로써 그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집중도로 측정되는 국제화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성과, 즉 수익성이 높아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3.3 실증모형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자 특성, 기업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높을수록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영자, 기업, 환경 특성에 국제화 수준 변수를 더하여

그 영향 및 유의성을 다중회귀모델로 분석한다.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첫 번째 그룹인 기업 특성 변수로는 ㉠창업후 몇 년이 지났는지를 나타내는 업력(FirmAge), ㉡종업원의 숫자의 로그값으로 표시되는 기업 규모(FirmSize), ㉢판매 제품을 전부 자체 생산하는지, 일부 자체 제조와 일부 외주(Outsourcing)의 혼합방식으로 쓰는지, 혹은 전부 외주로 생산하는지의 생산방식(ProdType), ㉣국내시장에서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TechLevel), ㉤기업의 종업원 중 기능별(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관리)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EmpRatio) 등이다.

독립변수의 두 번째 그룹인 경영자 특성으로는, ㉥경영자의 연령(CEOAge), ㉦경영자의 학력(박사, 석사, 학사, 고졸 등, CEOedu), ㉧대표자의 과거 업무 분야(기술개발, 마케팅, 전략 기획, 자금, 경영관리, 생산 등, CEOformerwork) 등이고, 세 번째 그룹인 환경 및 전략 특성으로는 ㉨리커트 지수로 나타내는 국내시장의 경쟁 수준(Comp)과 해외진출의 구체적인 방법인 ㉩해외수출지역의 수(NumExport)와 ㉪해외직접진출지역의 수(NumDirect)를 포함한다. 또한, 통제변수로 업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산업(IndType)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기존의 연구 사례(Lu & Beamish, 2001)에 따라서 기업의 국제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수출집중도”(Export Intensity, Exp)를 사용하는데, 이는 총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국제화 수준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모두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고, 종속변수인 수출집중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의 영업이익율(OpProfit)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일반선형회귀(OLS)를 사용하였으며, 국제화 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업, 경영자 및 환경 특성 변수로 구성된 첫 번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수출집중도이다.

$$[\text{회귀식 1}] Y = \alpha + \beta \text{IndType} + \theta_1 \text{Firm} + \theta_2 \text{CEO} + \theta_3 \text{Emp} + \epsilon_i$$

또한, 국제화 수준의 차이에 따른 기업의 성과, 즉 영업이익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Xi는 통제변수이고, 독립변수는 영업이익율이다.

$$[\text{회귀식 2}] Y = \alpha + \beta X_i + \lambda \text{Exp} + \epsilon_i$$

IV. 실증 분석자료 및 변수

4.1 자료의 선정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이 조사한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2년 말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된 벤처기업 28,193개사를 모집단으로 업종과 종업원 숫자 및 지역에 따른 층화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총 2,069개의

유효 표본을 획득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벤처기업의 국제화 동인 분석을 위하여 두 회귀식의 종속변수인 수출집중도와, 영업이익을 계산을 위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중 누락이 있는 81개사와 이상치(Outliers)인 18개 등 총 99개 기업을 제외한 1970개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⁶⁾ 한편, 두 번째 연구문제인 수출집중도와 영업이익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영업이익율이 양(+)의 실적을 보이는 경우에만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총 1,647개 기업).

표본은 모집단의 산업별 구성비중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에너지·의료·정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및 통신기기·방송기기 등 첨단제조업(436개사, 22.1%)과 음식료·섬유·금속 및 기계·제조·자동차부품 등 일반제조업(1,007개사, 51.1%),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등(310개사, 15.7%), 그리고 기타 업종(218개사, 11.1%)로 구성되었다. 또한, 창업후 4~10년된 기업이 41.2%를 차지하였고, 고용규모는 10~29인이 45.3%로 가장 많았고, 연간 매출액은 10억원 이하(32.5%)와 10~30억원 규모(28.2%)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대표이사가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9.3%, 석사학위 보유 17.3%, 학사학위 보유 50.2%, 전문학사 보유 7.2%, 그리고 고졸 및 기타가 15.9%였고, 전공 분야는 공학계열이 63.8%로 압도적이었고, 경상계열이 15.3%, 자연과학 계열이 7.8%,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이 7.1%를 차지하였다.

< 표 2 > 표본의 특성

구분	세부 항목	표본수	비중(%)	
산업 분류	첨단제조	에너지/의료/정밀	124	6.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25	11.4
		통신기기/방송기기	87	4.4
	일반제조	음식료/섬유/(비)금속	438	22.2
		기계/제조/자동차	569	28.9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개발	194	9.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16	5.9
기타	기타 업종	218	11.1	
고용 규모	1인-9인	717	36.4	
	10인-29인	810	41.1	
	30인-49인	221	11.2	
	50인 이상	223	11.3	
대표이사 학력	박사	183	9.3	
	석사	342	17.4	
	학사	990	50.2	
	전문학사	141	7.2	
	고졸 등	315	15.9	

또한, ‘생산방식’은 수출 및 판매 제품을 모두 자가 공장이나 생산시설에서 제조하는지, 부분적으로 외주하는지, 또는 모든 생산은 외주이고 이를 수출 또는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고, ‘보유기술수준’은 기업 CEO의 판단에

따라, 보유 기술의 상대적인 수준이 국내에서 최고 수준인지, 업계 중간 수준인지, 미흡 수준인지 또는 열위한 수준인지를 묻는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다.

한편, 첫 번째 회귀식의 종속변수인 수출집중도는 평균 8.28%로서 표본 벤처기업들은 매출액의 평균 약 8%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는 20.3으로 매우 컸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이 1,389개사로 70.5%를 차지하였고, 수출액이 있는 기업 중에서 그 비중이 5% 이하인 경우가 168개사, 5~10%가 111개사, 10~20%가 73개사, 20~30%가 37개사, 30~40%가 42개사, 40~50%가 37개사, 그리고 50% 이상이 114개사였다.

< 표 3 > 종속변수 특성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출집중도(%)	1970	8.28	20.3	0	100
영업이익율(%)	504	7.88	6.96	0.055	69.99

또한, 두 번째 회귀식의 종속변수인 영업이익율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 영업이익이 있는 504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평균 7.88%이고, 표준편차가 7.88이며, 그 최대값이 69.99%였다. 그 구성을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이익률이 10% 이하인 경우가 64.0%, 10~20%인 기업이 16.5%, 20~30%인 경우가 3.1%, 그리고 30%가 넘는 경우가 2.3%이다.

4.2 서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서술통계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 표 4 >와 같다. 본 연구대상 표본기업의 종업원수는 평균 24.1명(로그값은 2.66), 그리고 기업연령(업력)은 평균 7.5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의 비중은 평균 23.47%, 마케팅인력 비중은 평균 10.87%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화 전략을 나타내는 수출지역과 직접진출지역 중 수출지역의 분포는 전체 수출기업 531개사 중 220개사가 1개 지역, 152개사가 2개 지역, 74개사가 3개 지역, 기타 기업은 4~12개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평균 2.32개 지역에 진출하였다. 직접진출 기업은 78개사인데, 이들 평균 진출지역수는 1.78개로서, 1개 지역만 진출하는 기업이 45개사, 2개 지역 17개사, 3개 지역 11개사 등이다.⁷⁾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는 < 표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수출집중도’와 독립변수인 ‘경영자연령’(0.417), ‘수출지역수’(0.503) 등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한 바, 그 값이 각각 1.51, 2.43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 이상치의 탐색과 제거를 위하여 Cook's D를 사용하였다. 해당 값이 4/n 이상인 경우, 이상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값이 0.002 이상인 18개 기업이 이상치로 간주되어 제거되었다.

7) 진출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캐나다,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나누었다.

< 표 4 > 주요변수에 대한 서술통계 및 변수간 상관관계(n=1970)

변수	평균	표준 편차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수출집중도	8.28	20.30	1											
2.업력(년)	7.50	6.63	.081***	1										
3.경영자연령	49.23	7.94	.079	.417***	1									
4.ln(종업원수)	2.66	.98	.202***	.360***	.305***	1								
5.연구개발인력비중	23.47	22.06	-.019	-.164***	-.195***	-.242***	1							
6.마케팅인력비중	10.87	11.32	.023	-.004	-.042**	-.063***	-.129***	1						
7.수출지역수	.63	1.42	.503***	.132***	.096***	.226***	-.042*	.011	1					
8.직접진출지역수	.07	.43	.169***	.089***	.010	.176***	-.003	.030	-.073**	1				
9.국내경쟁정도	2.93	.95	-.046**	.074***	.025	.086***	-.024	.032	-.022	.028	1			
10.영업이익률	8.14	7.47	-.033	.057	.002	.049**	-.049**	.007	-.007	.005	.029	1		

주) *: p<0.1, **: p<0.05, ***: p<0.01

< 표 5 > 각 요인과 수출집중도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B	t	유의확률	F
상수	17.150	3.24	0.001	
경영자 특성	연령	0.058	1.07	0.285
	학력			
	- 박사	-	-	-
	- 석사	-3.144**	-2.04	0.041
	- 학사	-2.996**	-2.08	0.038
	- 전문학사	-3.586*	-1.86	0.064
	- 기타	-5.679***	-3.35	0.001
	과거 업무분야			
	- 기술개발	-	-	-
	- 마케팅	18.368**	2.24	0.025
- 전략기획	-1.111	-0.31	0.779	
- 자금	-2.595	-0.71	0.480	
- 경영관리	0.682	0.26	0.797	
- 생산	1.472	0.57	0.570	
기업 특성	업력	-0.189*	-1.94	0.053
	종업원수(로그값)	0.473	0.94	0.345
	생산방식			
	- 자체 제조	-	-	-
	- 제조+외부	0.669	0.83	0.408
- 전부 외주	4.652**	2.32	0.020	
보유기술수준				
- 국내 최고	-	-	-	
- 국내 중간	-1.381	-1.11	0.268	
- 미흡	-0.207	-0.16	0.874	
- 경쟁열세	-1.095	-0.69	0.493	
환경 및 전략	국내경쟁수준	-0.339	-0.86	0.389
	해외수출지역수	4.134***	11.04	0.000
	해외진출지역수	2.614*	1.82	0.069

주) *: p<0.1, **: p<0.05, ***: p<0.01

V. 실증분석 결과

5.1 벤처기업의 국제화 영향 요인

5.1.1 통제변수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기업 특성, 경영자 특성 및 환경 특성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서 사용된 업종(산업)은 에너지·의료·정밀산업의 벤처기업보다 통신·방송기기 벤처기업들의 수출집중도가 7.22%(t값=0.001), 그리고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벤처기업들의 수출집중도는 3.18%(t값=0.079) 높았고, 다른 업종 벤처기업들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수출집중도)은 업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1.2 독립변수

5.1.2.1. 경영자 특성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영자의 특성별로 그 유의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경영자의 연령은 수출집중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학력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매우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박사학위를 가진 경영자의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석사(-3.144, t값=0.041), 학사(-2.996, t값=0.038), 전문학사(-3.586, t값=0.064) 및 기타(-5.679, t값=0.001)보다 현저하고 유의하게 수출집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장훈 등(2013)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로 이공계 출신의 고학력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자의 과거 업무분야 역시 분야별로 차이가 크다. 과거 업무분야가 마케팅 업무였던 경우에는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했던 경영자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경우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출집약도 18.4%나 높았고, 이는 매우 유의하였다($t_{값}=0.025$). 그러나, 전략기획, 자금 및 경영관리, 생산 등 다른 분야 업무경험 시에는 그 영향도 크지 않았고, 유의성도 없었다. 벤처기업의 주요 경쟁력이 연구개발 및 기술에서 연유한다는 일반적인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외의 결과이며, 경영자의 연구개발 역량보다,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역량이 국제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의 세 가지 요소는, 경영자의 연령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지만, 학력 및 과거 업무분야는 경영하는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의 차이가 있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5.1.2.2. 기업 특성

먼저, 벤처기업의 업력은 국제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업력이 증가할수록 국제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계수=-0.189, $t_{값}=0.053$). 이는 단계적 국제화이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이 태생적 글로벌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벤처기업의 29.5%만이 수출 또는 해외직접진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해외에서 더 많은 비중의 매출이 발생하다고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자체 생산을 통한 판매나, 자체 생산과 외부를 혼합하는 방식보다는 전부 외주를 통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수출집약도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자체 제조에 비해 +4.652, $t_{값}=0.020$). 이는 초기 투자자가 많이 소요되는 생산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보유 기술력을 활용하여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생산 외주를 하는 경우에 창업 초기에 해외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Kim et al.(2013)과는 달리, 종업원 규모와 보유기술 수준의 차이는 수출집약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비록, 보유기술 수준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수출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선정 기준이 기술성이 핵심이어서 인정된 벤처기업간의 기술력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이러한 차이가 해외시장 진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서, <가설 2> 중 업력 및 생산방식의 차이가 수출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회사 규모의 영향에 관하여는 기각할 수 없다. 또한, <가설 3>은 위에서 분석한대로, 보유하는 기술수준의 차이가 수출집약도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5.1.2.3. 환경 및 전략 특성

먼저, 국내시장의 경쟁 수준은 벤처기업의 수출집약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하여져서 출혈 경쟁 등의 시장 상황일 때 해외시장 진출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Shin, 2014; Park 2011)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객관성이 미흡하거나, 태생적 글로벌기업 성격을 지닌 기업의 경우, 기술 수준의 차이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역량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할 수 없다.

또한, 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소수의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해외진출에 성공적인지, 아니면 다수의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가설 5>에 대한 검증은, 수출지역을 늘릴수록 매우 유의하게 수출집약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계수=4.134, $t_{값}=0.000$),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해외직접진출 지역 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출집약도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수출지역 확대보다 낮다(계수=2.614). 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이 해외직접 진출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출집중도 증가에 시간차가 있어서일 수가 있고, 해외 직접진출하는 경우, 현지 생산 등의 방법으로 쓸 수 있으므로 수출에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5.2 국제화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었다. 수출집중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위의 회귀식에서 사용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는 여기에서 모두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해외수출 실적을 보인 영업이익률이 양인 기업들은 수출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만(계수=0.000165), 그 유의성이 높지 않다($t_{값}=0.156$). 이는 국제화 수준이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형준 등(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수출집중도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업력 그룹별로 달라지는지는 분석하기 위하여 업력 10년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군은 수출집중도가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매우 낮았지만, 업력 10년 이상 기업군은 그 계수가 양(+)일 뿐만 아니라(계수=0.000413), 매우 유의하였다($t_{값}=0.005$). 이는 태생적 글로벌기업 특성을 지닌 벤처기업들이라 할지라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출집약도의 증가가 영업이익률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업력의 증가에 따라, 해외진출 및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영업이익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의 증가에 매우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

< 표 6 > 기업성장단계별 수출집중도와 기업성과와의 관계

변수	전체표본(n=504)		창업초기기업(n=307)		창업성장기업(n=195)	
	계수	t	계수	t	계수	t
상황	0.078	0.116	0.079	0.321	0.096	0.092
수출집중도	0.000165	0.156	0.0000472	0.775	.000413	0.005** *
Adj. R2	.096		.100		.138	
F	2.28***		1.81***		1.74***	

주1) '창업초기기업'은 업력 10년 미만, '창업성장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으로 구분
 주2) *: p<0.1, **: p<0.05, ***: p<0.01

5.3 분석결과의 함의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는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경영자, 기업 및 환경적 특성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 경영자의 학력은 그 국제화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어서 박사학위 경영자의 기업의 기타 학위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수출집중도를 보인다. 또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과거 경험업무가 마케팅 분야인 경우, 다른 업무 경험보다 현저하게 벤처기업의 수출집중도가 높다.

둘째, 벤처기업의 업력이 증가할수록 그 수출집약도는 유의하게 낮아진다. 이는, 비록 벤처기업의 약 30%만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업들은 태생적 글로벌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초기의 수출집약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을 증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은 자체 생산을 통한 판매나, 자체 생산과 외부를 혼합하는 방식보다는 전부 외주를 통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수출집약도가 더 높다.

셋째, 내시장의 경쟁 수준은 벤처기업의 수출집약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해외수출지역수 및 해외직접진출지역수 늘릴수록 수출집약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은 직접진출보다 수출방식이 수출집약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집약도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율의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창업초기(10년 이내)과 그 이후의 기업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창업초기 기업들은 그 영향 유의성이 더 떨어지는 반면, 그 이후의 기업들은 수출집약도의 증가가 매우 유의하게 영업이익율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벤처기업군이 태생적 글로벌기업 특성을 가진 많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국제화에는 그 보유 기술수준이나 업종 및 기업 규모보다는 경영자의 교육수준이나 과거 업무경험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교

육과 해외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한계

최근 정부는 혁신형 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을 위주로 한 벤처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들 중에는 아직도 국내시장을 위주로 창업 및 영업하는 기업들이 많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요인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경영자, 기업 및 환경이나 전략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국제화 수준의 변화가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 경영자의 교육 수준과 과거 업무경험, 그리고 수출지역 및 직접진출지역의 수가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벤처기업의 업력은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수출집약도가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 업력에 따라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서, 창업단계 이후의 기업에게만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최근 국제적 경쟁의 심화, 기술개발의 급속화 및 융합화와 함께 고객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서비스가 요청되면서 기업의 외부적 협력구조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비핵심 부분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전략에 따라서는 핵심 부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문도 과감하게 외부의 힘을 빌어 핵심 역량들을 다각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 경영자 요인 중 교육수준과 과거 업무경험 분야가 벤처기업 국제화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벤처기업의 업력은 벤처기업 국제화 수준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셋째,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 증가가 기업성과, 즉 영업이익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 업력에 따라 달라서, 창업 초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점차 국제화의 증가가 영업이익율 증가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8) 이는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는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다가, 국제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Park(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측정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벤처기업의 기술수준 자료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수준 자료 등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탐색하여 그 변수들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단년도의 횡단면 분석자료로서 벤처기업의 국제화 노력이 기업마다의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창업 후 지속적인 자원의 확대를 통한 활동의 확대로 이어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동일한 연도의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국제화 수준이 영업이익율에 미치는 시차적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활동의 성과는 2-4년의 시차를 두고 생산성 등 경영성과에 반영된다는 연구(Belderbos et al. 2004)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의 혁신활동이나 해외진출 및 그 성과와 관련된 시계열 자료 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를 감안하여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Belderbos, R., Carree, M. & Lokshin, B.(2004), Cooperative R&D and Firm Performance, *Research Policy*, 33(10), 1477-1492
- Bloodgood, J., Sapienza, H. & Almeida, J.(1996),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ew High-potential US Ventures: Antecedents and Outcom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4), 61-77
- Burgel, O., Fier, A. & Licht, G.(2001),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of High-tech Young Firms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London: London Business School
- Carrier, C.(1999),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Needs of Owner-Managers of Small Business with Export Potentia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4), 30-41
- Choi, W., Seong, K. & Choi, S.(2015), *A Study on Globalization Process of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New Venture (INV) Theory Perspective*, Conference on Born-globals, Korea International Management Association, 295-315
- Crick, D. & Jones, M. V.(2000), Small High-Technology Firms and International High-Technology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2), 63-85.
- Christensen, P. & Jacobsen, L.(1996), *The Role of Export in New Business Formation*, Rent X, Brussels
- Davidsson, P., Lindmark, L. & Olofsson, C.(1994), New Firm Form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weden, *Regional Studies*, 28(40), 395-410
- Donthu, N. & Kim, S.(1993), Implications of Firm Controllable Factors on Export Growth, *Journal of Global Marketing*, 7(1), 47-64
- Eusebio, R., Andreu, J. L. & Belbeze, P. L.(2007), Internal key factors in export performance: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Italian and Spanish textile-clothing sector,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1, 9-23.
- Hult, T., Ketchen, D. & Griffith, D.(2008), An Assessment of the Measurement of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 1064-1080
- Ibeh, K.(2000),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small firm,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Principles, Practice and Policy*, London, Financial Times and Prentice Hall, 434-452.
- Jeong, S. & Won, J.(2015), The Effect of Korean Ventures' Capabilities on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iz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97-105
- Johanson, J., & Vahlne, J.(1977),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1), 23-32
- Jolly, V. & Jeannet, J.(1992), Challenging the Incumbents: How High Technology Startups Compete Globally?, *Strategic Change*, 1(2), 71-82
- Kang, S.(2011), The Impact of Firm Globalization on Performance,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15(2), 69-86
- Kim, H. & Jeong, D.(2007), An Analysis on Venture Businesses Pursuing Born Globals,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7(3), 39-59
- Kim, J., Park, J., Lee, K., Kwon, K., & Kim, J.(2013), An Analysis on Dynamic Success Factors of Born Globals, *International Trade Review*, 38(3), 409-436
- Kim, M., Kim, J., & Kim, T.(2010),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Activities: the Case of Born-globals in Korea, *Korea Industrial Economy Journal*, 21(3),91-111
- Knight, G. & Cavusgil, T.(1996), A Taxonomy of Born-global Firm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005, 15-35
- Lages, C. R. & Lages, L. F.(2005), The RELQUAL Scale: a Measure of Relationship Quality in Export Market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8), 1040-1048
- Lu, J. & Beamish P.(2001),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Performance of SM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 565-586
- Madsen, T. K. & Servais, P.(199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orn Globals: an Evolutionary Proc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6(6), 561-583
- McDougall, P. P. & Oviatt, B.(1996), New Ventur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c Change, and Performance: A Follow-up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1), 23-40
- Ogunmokun, G. & Ng, S.(2004), Factors Influencing Export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Marketing: a Study of Australian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21(1), 172-185
- Oviatt, B. & McDougall, P. P.(1994), Toward a Theory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1), 45-64
- Park, K. & Kwon, Y.(200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Born-global Firms,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17(1), 135-153
- Park, K.(2007), An Analysis on the Speed of Internationalization of Technology-based Korean

- Venture Businesses, *International Regional Studies*, 11(3), 321-349
- Park, S.(2011), The Effect of Firms' Internationalization on Their Performance,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15(2), 69-86
- Rennie, M.(1993), *Born Global*, The McKinsey Quarterly, Autumn 1993
- Shin, Y.(2014), Analysis on the Factors of Internationalization of Born Globals, *International Trade Review*, 39(2), 111-138
- Welch, L. & Luostarinen, R.(1988), Internationalization: Evolution of an Concep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rm*, 14, 83-98
- Westhead, P., Wright, M. & Ucbasaran, D.(200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ew and Small Firms: a Resource-based View,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4), 333-358
- Yoon, D. & Cho, D.(2007),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Factors of Korean Venture Businesses,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18(1), 29-58
- Zou, S. & Stan, S.(1998), The Determinants of Export Performanc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between 1987 and 1997,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5(5), 333-356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Globalization of Korean Venture Business*

Kim, Jong W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gree of export intensity of Korean venture businesse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export intensity on corporate performance. We use 1,970 firm data (from Venture Business Survey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nalyze the possible factors of the CEO characteristics,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ur analysis shows that Korean venture business' CEO characteristics, such as his/her doctoral degree and marketing work experiences, increase their export intensity statistically significantly, while their age does not. In addition, the companies who outsource their products have a higher export intensity, and, as the firm age increases, the export intensity decreases significantly. It is also analyzed that, as the number of export regions or FDI regions increases, their export intensity goes higher. However, firms' higher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does not bring higher performance of the venture firms, while it does significantly for the venture firms that are older than 10 years.

The result implies that CEO's education or work experiences and strategic approaches are important for corporate globalization, and that it takes time for globalizing venture firms to be able to garner profits from their global investments.

Keywords: Venture Business, Born Globals, Export Intensity, Globalization, Operating Profi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nam University's 2015 research grant program.

** Professor, Global Business Department, Hannam University, jongkim09@hnu.kr